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KOSPI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6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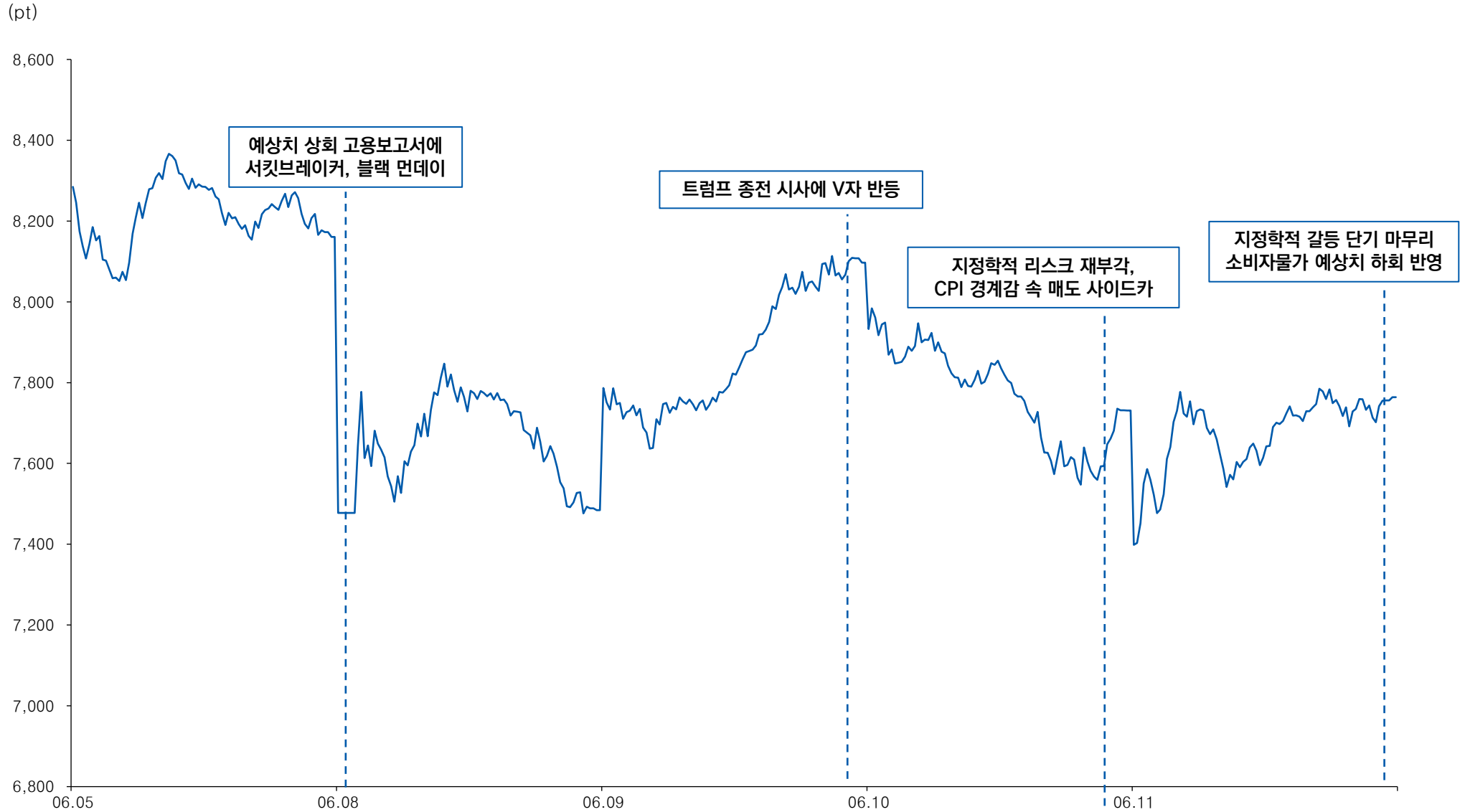
SUMMARY

KOSPI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6월 3주)

- 주간(6/5~6/11) KOSPI, KOSDAQ은 각각 -10.1%, -5.0% 하락했습니다. 전주 신고가 경신 이후 금리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AI 투자 우려가 겹치며 국내 증시도 대형주 중심 차익실현이 나타났습니다. 낙폭이 컸던 KOSDAQ은 하방이 지지됐고, 반도체 소부장·내수 일부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인됐습니다.
- 이번 조정의 명분은 전쟁·유가·금리였지만, 본질은 5월 이후 과도했던 쏠림 해소였습니다. 미국 5월 CPI와 PPI는 헤드라인 부담이 있었으나 근원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가 상승도 에너지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가속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 역시 헤드라인은 강했지만 월드컵 특수(레저·숙박, 정부, 헬스케어) 효과였습니다.
- AI 투자 사이클 우려도 추세 훼손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루소 프로젝트, CPO 지연, SoCAMPM 탑재량 축소, 브로드컴 가이던스, 오라클 Capex 부담 등 노이즈는 많았지만 대부분 수요 둔화보다 공급 제약, 프로젝트별 병목, 높아진 기대치 조정에 가깝습니다. 구글의 삼성전자 AI칩 협력 기대, SK하이닉스 ADR 상장 모멘텀, 메모리 가격 상승은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중장기 수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근거입니다.
- 실적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이 야기할 EPS 상황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6월 1~10일 총수출은 286억달러, 반도체 수출은 111억달러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효과와 1,500원을 상회한 원/달러 환율까지 감안하면 2분기 실적 기대는 유효합니다. KOSPI 12개월 선행 EPS도 반도체 수출과 높은 동행성을 보이고 있어, 삼성전자 잠정실적을 기점으로 재상향 가능성이 큼니다. EPS 하향 조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추가 투매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과거 덩벨류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진 사례는 대부분 시스템 리스크가 동반된 국면이었습니다. 현재는 AI Super Cycle과 반도체 EPS 개선이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하락은 경기 침체 신호보다 과열 해소 후 압축 대응 구간에 가깝습니다.
- 다음주는 FOMC가 핵심입니다. FOMC에서는 점도표와 파월 발언이 변동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무리한 확산 베팅보다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유통, 금융처럼 실적 확인 가능성이 높고 수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업종 중심 압축 대응이 유효합니다.

매일 매일 사이드카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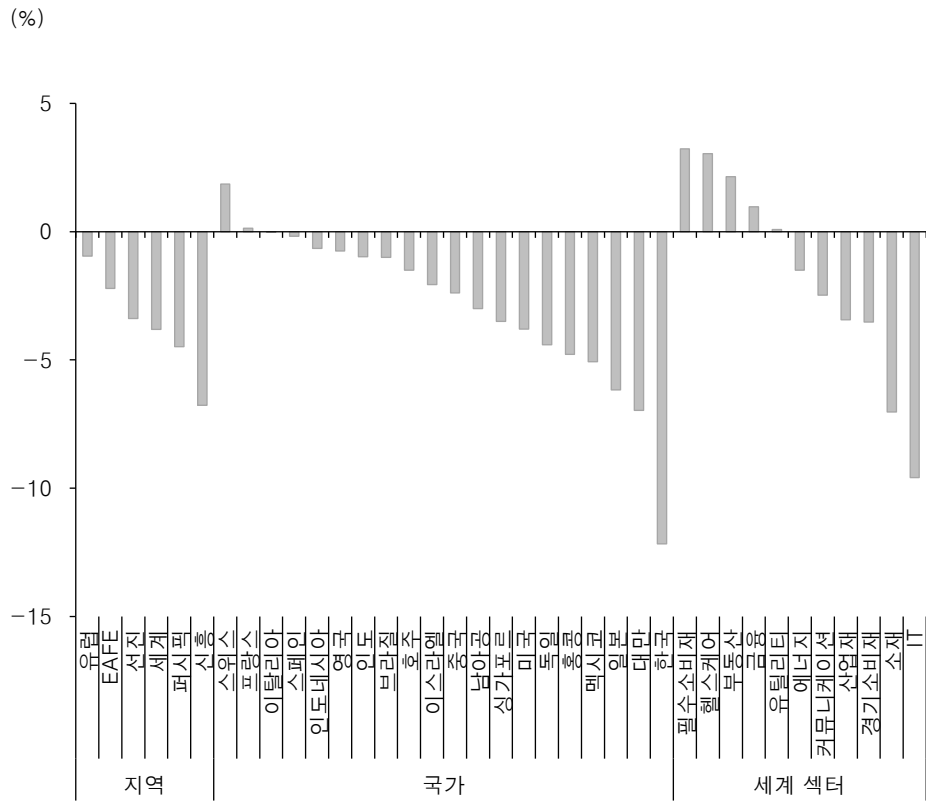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신고가 경신 후 차익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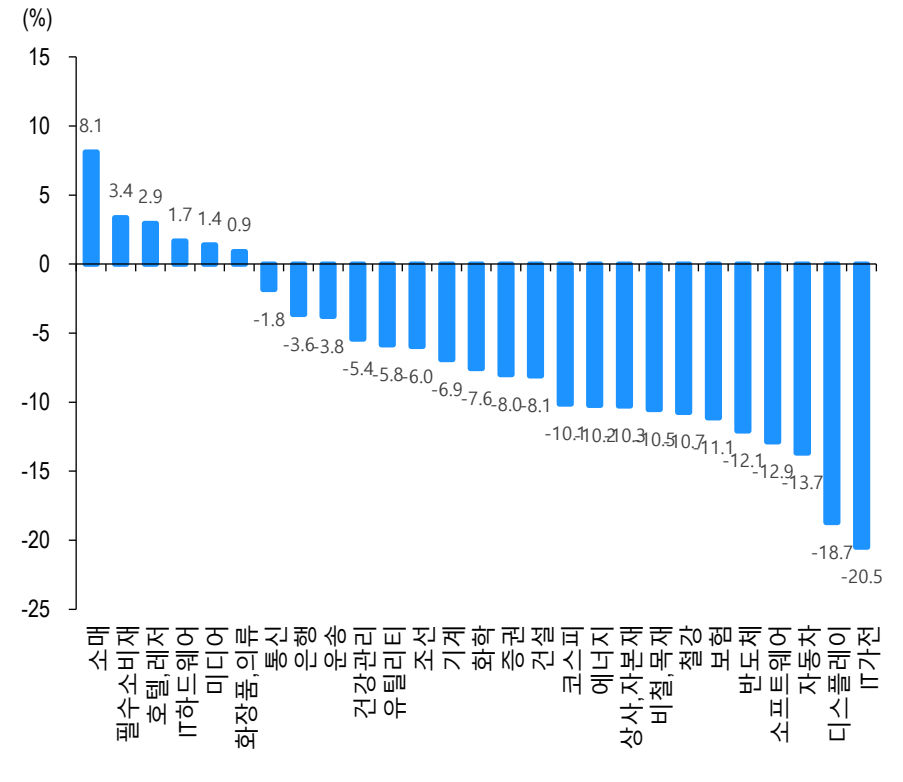
- 주간(6/5~6/11) KOSPI, KOSDAQ 각각 10.1%, 5.0% 하락. 전주 신고가 경신 후 금주 금리 변동성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되며 세계 주식시장 동반
- 대형주 대비 KOSDAQ 상대적 소외 지속됐으나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심 KOSDAQ 상대적 강세
- 젠슨황 귀국과 함께 젠슨황 테마로 편승했던 엘지전자, NAVER 등 관련 종목 하락. 소매 업종 상승률 1위, 백화점(유통) 실적 기대감 반영하며 6월 변동성 국면에서 신고가 랠리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6월 3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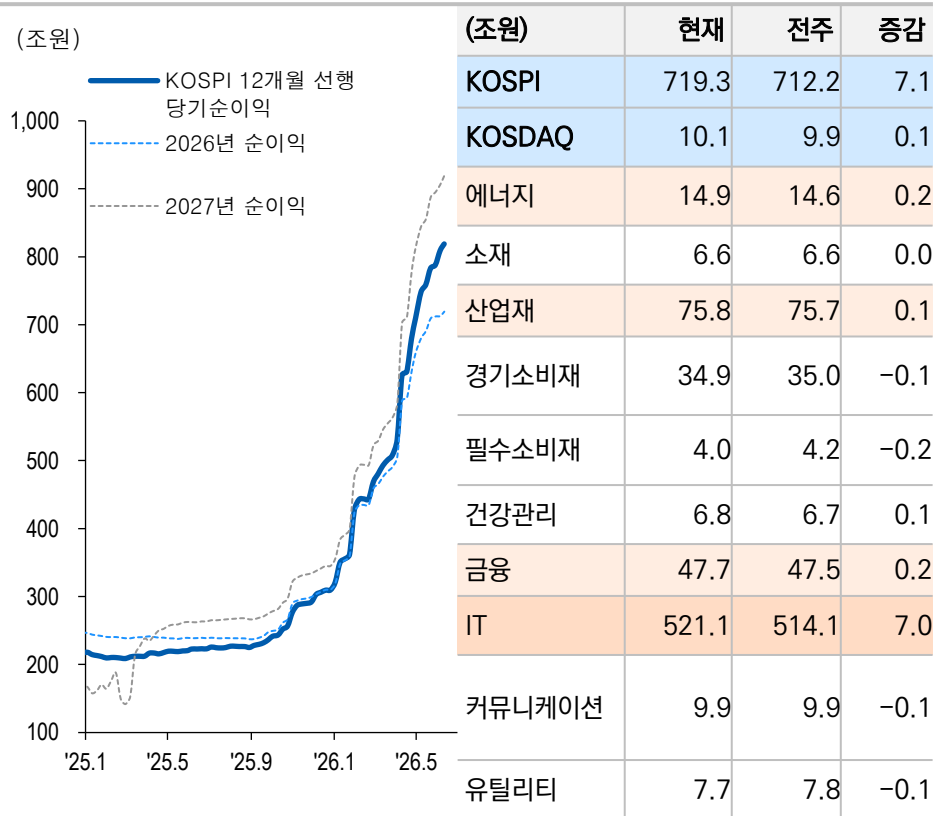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6월 4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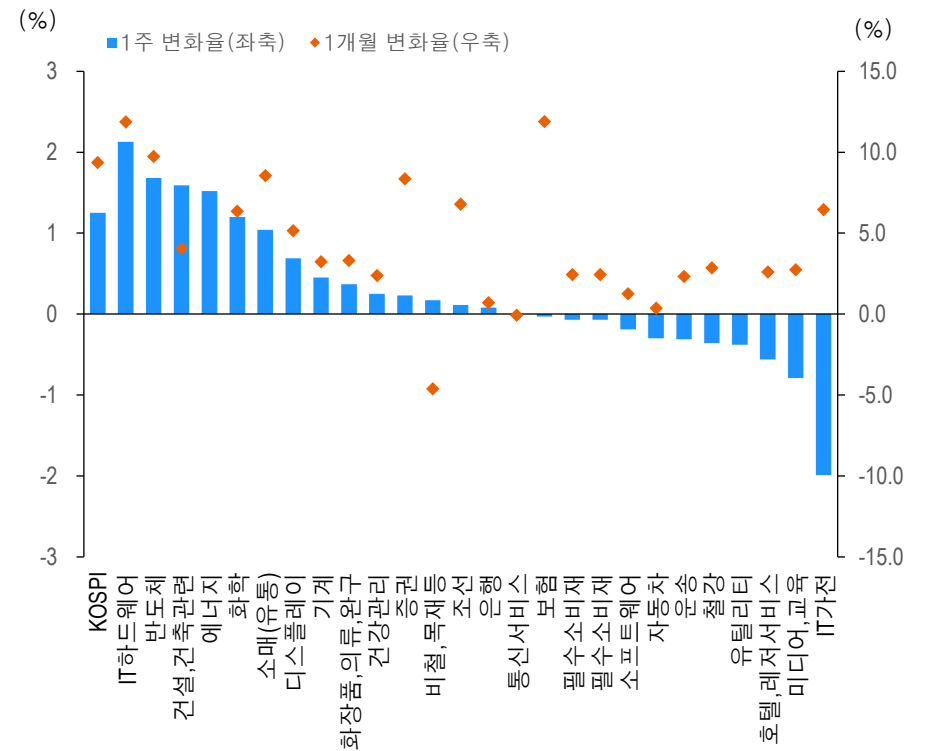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7.1조원 증가
- KOSPI IT 섹터 중심 이익 증가 지속. 여전히 산업재, 금융 등 섹터 전반 온기 확산세도 지속
- IT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IT가전, 미디어, 호텔, 유틸리티 업종 EPS 하향 조정 상위 업종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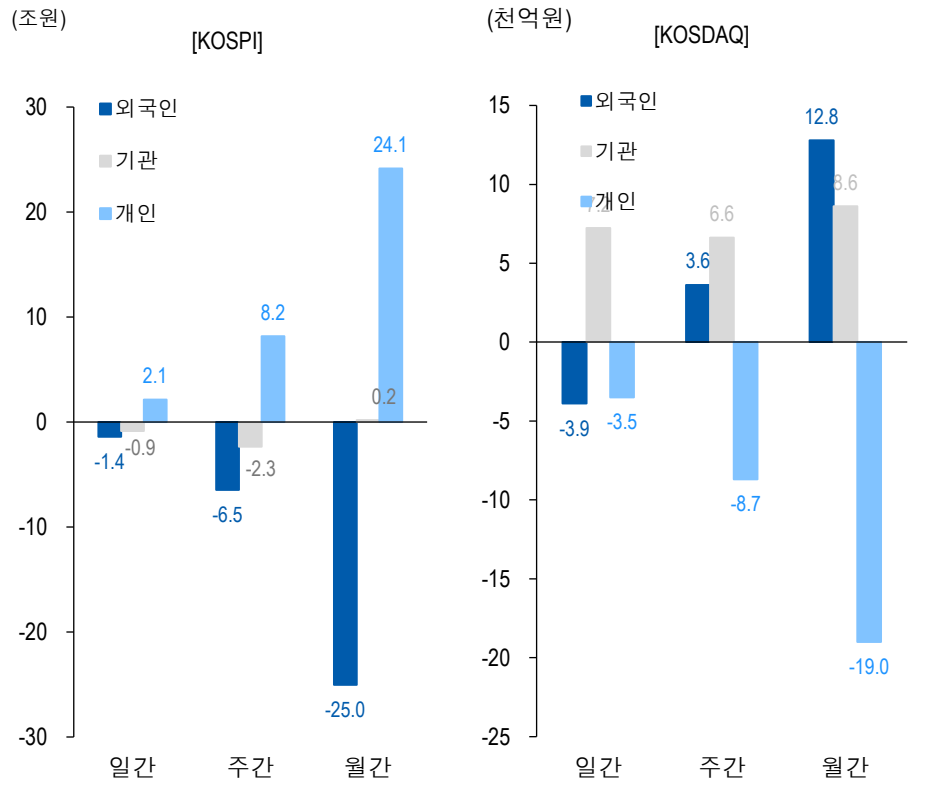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기계적 리밸런싱 지속됐지만...

- 외국인 주간 6.5조원 순매도. 기계적 리밸런싱 . 단, 6월 8일 월요일 지수 8.3% 급락에도 외국인 순매도 대금 대폭 축소. 지수 급락에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오히려 축소된 점은 최근 매도가 한국 시장 구조적 이탈이 아닌, 추가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성격성 매도임을 시사. 투매에 투매를 낚는 수급 악화 우려는 멀어질 전망
- 여전히 외국인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 순매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물량 다 받아내고 있는 개인투자자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화학	상사, 자본재	반도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자동차
	건설, 건축관련	기계	기계
	철강	화장품, 의류, 완구	IT가전
	유틸리티	IT하드웨어	조선
순매도 상위	조선	철강	화장품, 의류, 완구
	상사, 자본재	건강관리	보험
	기계	IT가전	화학
	자동차	자동차	상사, 자본재
	반도체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부정적 이벤트가 다수였던 미국-이란 갈등

주간 미국-이란 지정학적 갈등 심화 여부 확인 이벤트

일자	핵심 뉴스플로우
6/5 금	미국과 이란이 2일 연속 공습을 주고받고, 미국은 이란 레이더 시설을 타격. 동시에 이란은 레바논·헤즈볼라 휴전을 미국과의 포괄 합의 조건으로 재확인
6/6 토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자제를 압박하겠다고 했지만, 이란은 레바논 공격 지속 시 미군기지·이스라엘 자산을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
6/7 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교외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 레바논 국영매체 기준 사망·부상 발생
6/8 월	이스라엘의 이란 내 석유화학 시설 공격, 이란의 하이파 보복 타격 이후 양측이 일시 공격 중단 . 유가는 장중 5% 이상 급등 후 +1%대 상승 마감. EU는 호르무즈 통행 방해 관련 이란 제재.
6/9 화	이란·이스라엘 공격 중단 소식에 유가는 7주 저점까지 하락했지만,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며 보복을 시사 .
6/10 수	미국과 이란이 다시 상호 공습 . 트럼프는 합의가 없으면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경고 . 이란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발포 가능성까지 언급.
6/11 목	이란 합참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공식 발표하고, 통과 시도 선박에 발포 경고. 미국은 상업 선박 통항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 레바논에서도 북부 이스라엘 방향 발사체 탐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통화정책회의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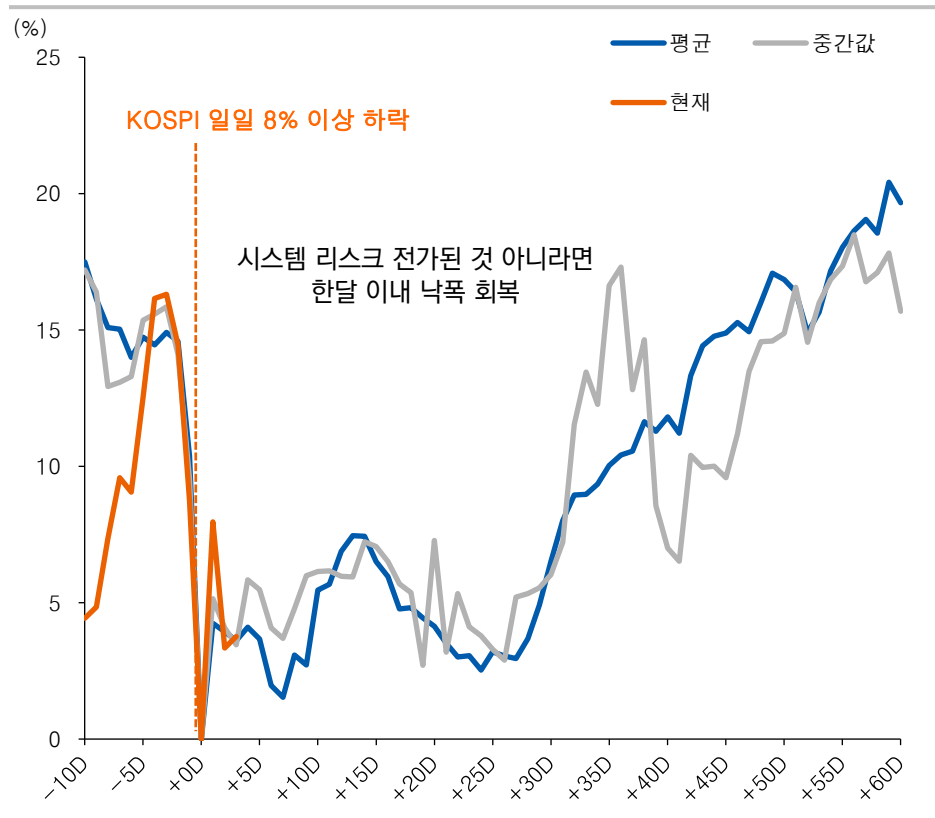
6월 3주차 주간 일정

	6월 15일(월)	6월 16일(화)	6월 17일(수)	6월 18일(목)	6월 19일(금)
경제지표	미국) 5월 산업생산	일본)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FOMC 회의 5월 소매판매	영국) BOE 기준금리 결정	
정치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참석)				미국, 홍콩, 대만, 중국 휴장
주목 Point	<p>BOJ를 우려하는 투자자들 존재하나 이번 BOJ에선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 선반영된 상황. 24년 8월 블랙먼데이와 달리 상당 부분 예고된 이벤트. 엔화도 여전히 엔달러 160엔 이내의 약세권에 머물르고 있음. 핵심은 BOJ가 과도하게 매파적인 금리 인상 언급을 할 경우</p> <p>다음주 핵심 이벤트는 FOMC로 판단. 금리 인상 여부보다 인하 기대가 사라지는지가 핵심. 근원 CPI가 예상치 하회했기에 당장 인상 명분은 약하다는 판단. 그러나 여전히 고유가 상황에서 헤드라인 물가 고공행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완화적으로 돌아서기도 어려움. 동결 자체는 이미 시장 반영. 관건은 점도표. 연내 인하 전망이 사라지는지, 일부 위원이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는지가 핵심일 전망. 케빈워시의 첫 FOMC 기자회견 발언에 집중</p>				

과거 일일 8% 이상 지수가 빠졌을 때, 경기 침체 온 것 아니면 V자 반등

- 2000년 이후 일일 KOSPI 지수 8% 이상 하락은 총 7차례.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가 실물 경기 침체로 확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크게 반등했던 경험. 6월 8일 발생한 8% 이상 하락 이후의 지수 흐름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 급락일 이후 10일, 30일, 90일 평균 수익률은 각각 5.5%, 6.5%, 15.3%.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보긴 어려움

KOSPI 8% 이상 급락 이후 지수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8% 이상 지수 급락 일자 정리 및 급락 이후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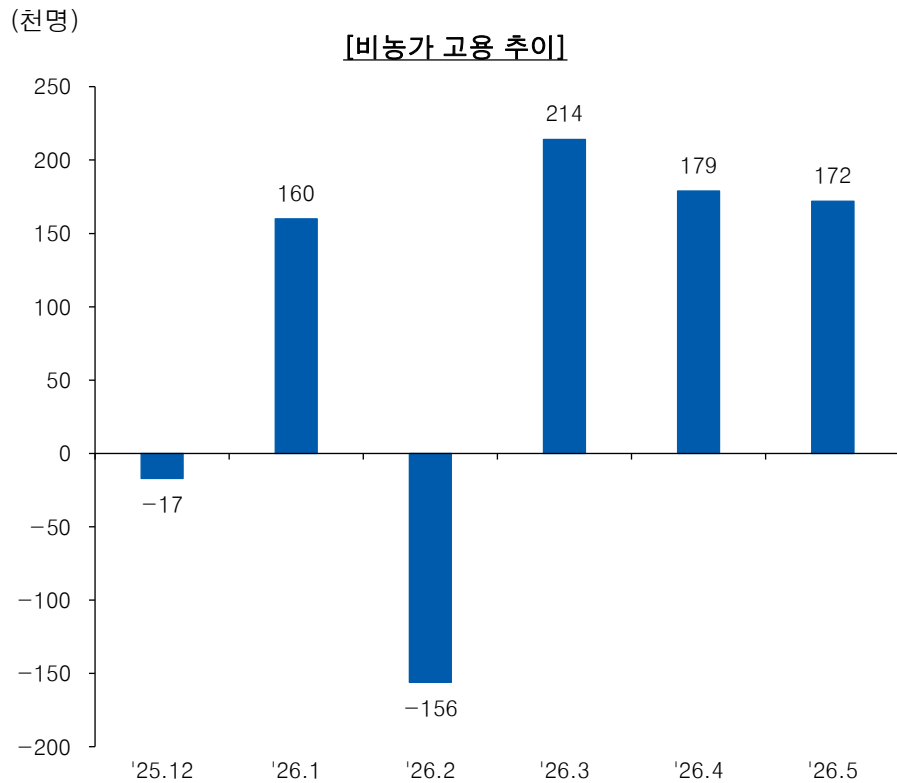
KOSPI 지수 급락일	당일 수익률	지수 급락 사유	10일 수익률	30일 수익률	90일 수익률
2000-04-17	-11.6	IT버블 붕괴	6.1	4.3	3.3
2000-09-18	-8.1	포드 대우차 인수 포기·유가 급등	2.0	-11.6	5.2
2001-09-12	-12.0	9·11 테러 충격	-0.6	14.1	46.6
2008-10-16	-9.4	글로벌 금융위기	-11.2	-13.2	-14.0
2020-03-19	-10.6	코로나 유동성 패닉	16.8	28.0	44.0
2024-08-05	-8.4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9.9	6.0	1.7
2026-03-04	-8.8	미국·이란 전쟁 확산 우려	15.1	17.9	27.3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Black Monday 야기했던 미국 5월 고용, '서프라이즈'보다 '편중'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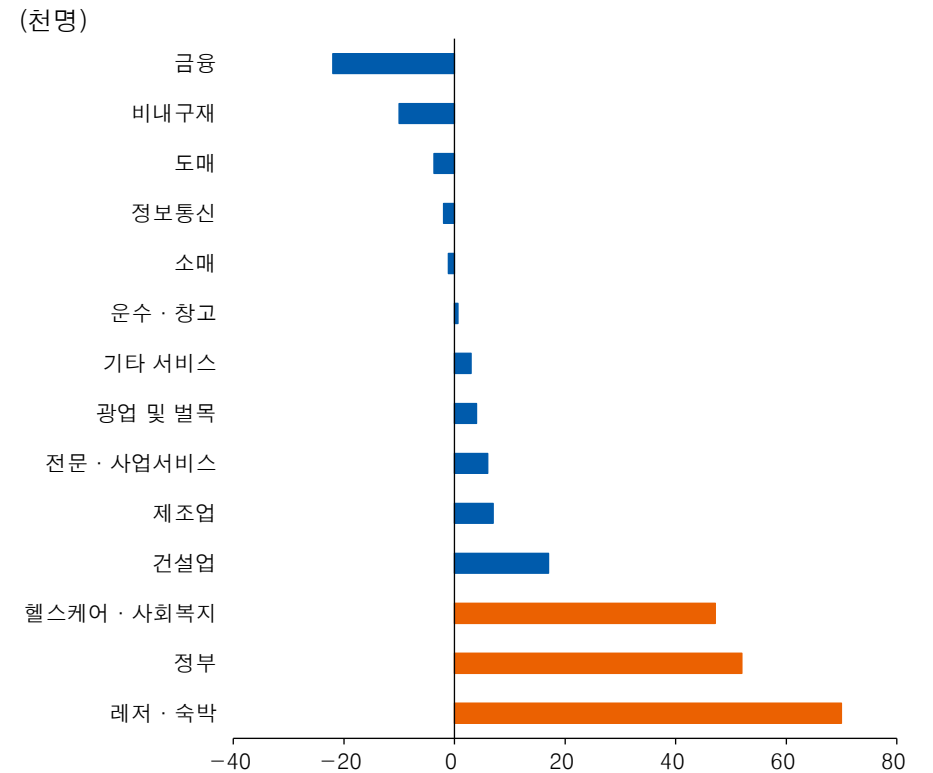
- 미국 5월 비농가 취업자 17.2만명 증가. 헤드라인 고용은 강했으나 레저·숙박(+7.0만명), 정부(+5.2만명), 헬스케어·사회복지(+4.72만명)에 편중
- 특히 레저·숙박은 12개월 평균(+1.4만명)을 크게 상회해 월드컵 특수에 따른 일시적 채용 가능성을 시사. 금융업(-2.2만명) 등 고소득 부문은 감소해 “Good is Bad”를 추세적 고용 호조로 해석하기엔 무리. 과열된 시장의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

헤드라인 고용 예상치 크게 상회하며 시장 하락 야기



자료: US Bureau of Labo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민간서비스·정부가 헤드라인 98.4% 견인, 고소득 부문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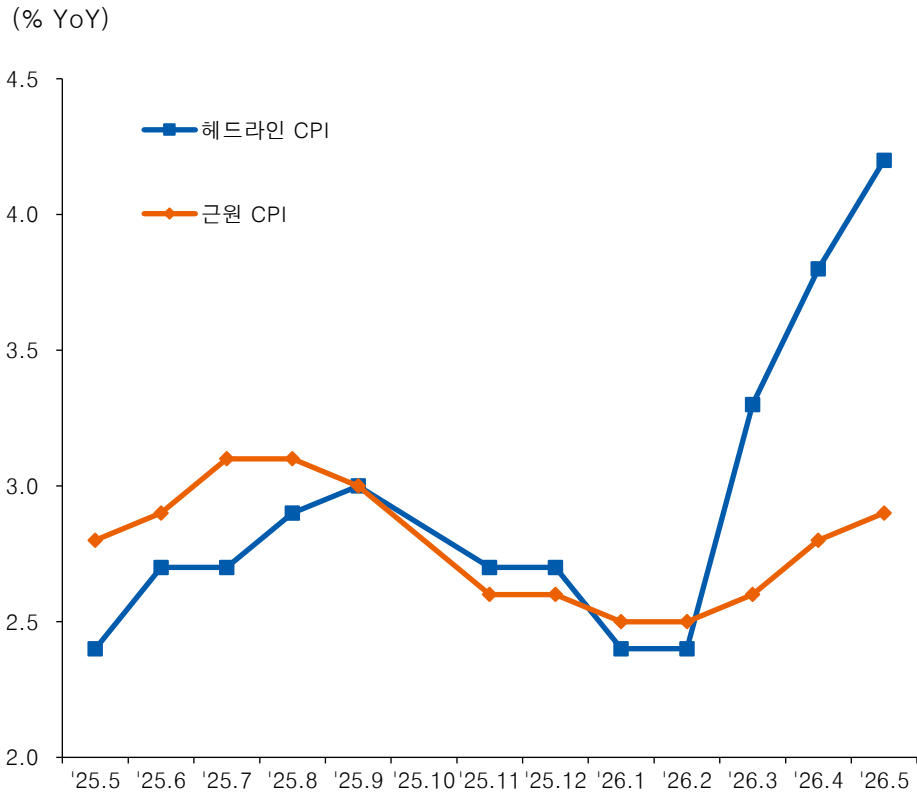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5월 소비자물가, 재가속 신호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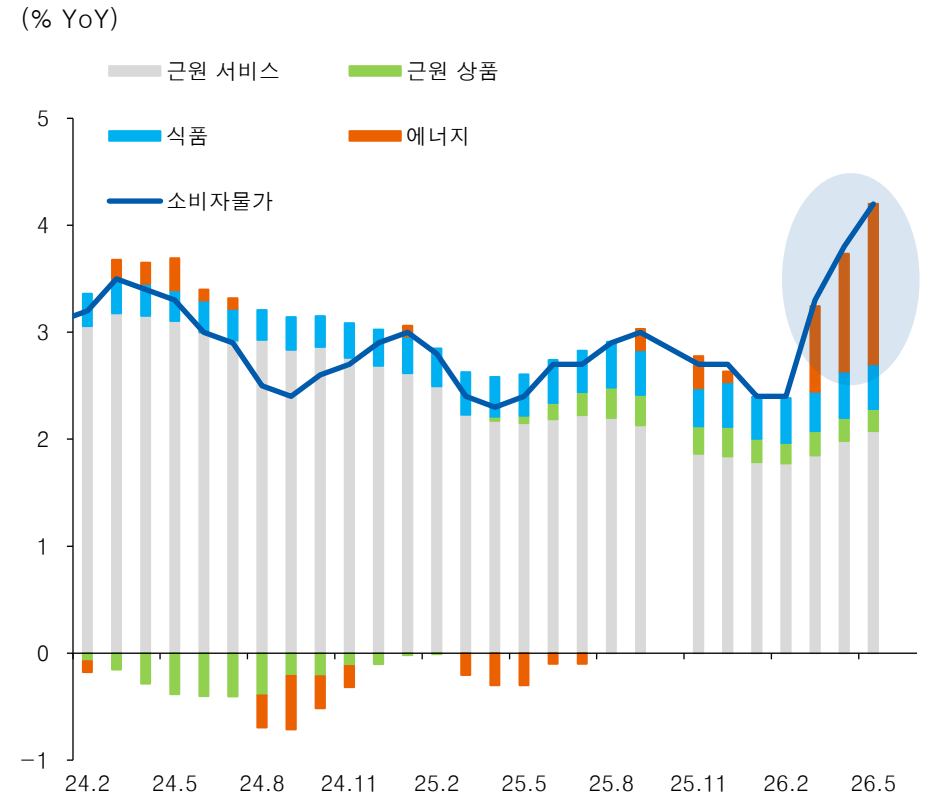
- 고용과 더불어 주요 우려 원인이던 소비자물가, 헤드라인 CPI 예상치 부합. YoY +4.2%. 근원 CPI는 YoY +2.9%에 머물며 예상치 하회
- 에너지 가격이 월간 전체 CPI 상승분의 60% 이상 차지. 최근 물가 상승이 경기 전반의 수요 압력이 아닌 전쟁, 유가 충격에 더 크게 기인

헤드라인 CPI 예상치 부합했으나 높은 수준, 근원 CPI 예상치 하회에 안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헤드라인 물가 상승 기여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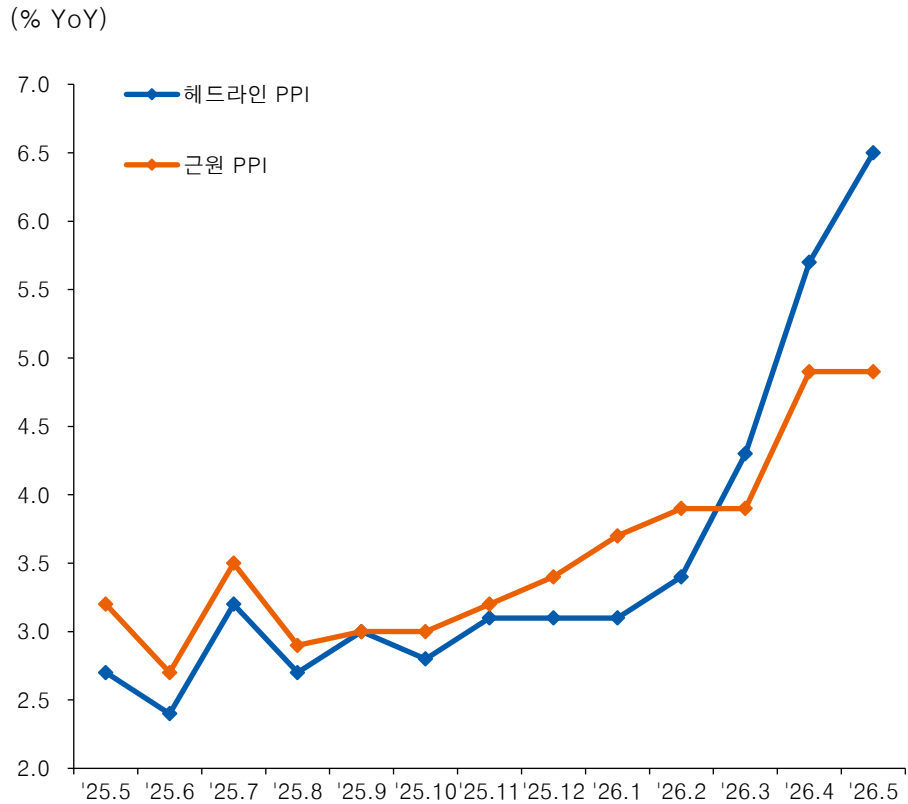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5월 생산자물가, 근원 물가 예상치 하회했으나 경계감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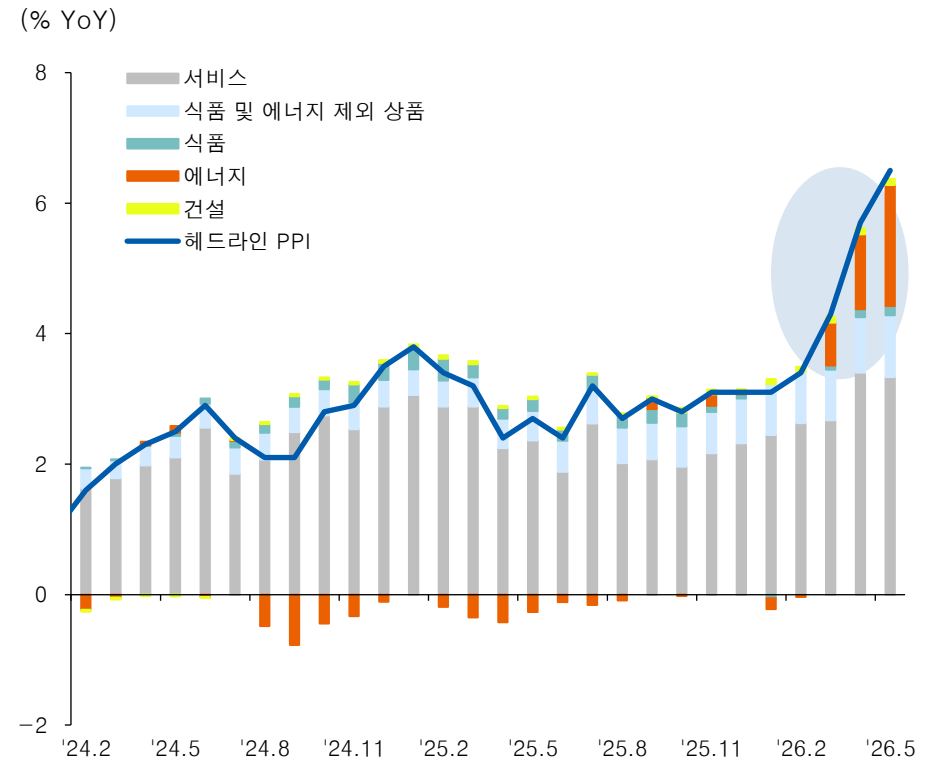
- 고용과 더불어 주요 우려 원인이던 생산자물가, 헤드라인 PPI 예상치 상회. YoY +6.5%. 근원 CPI는 YoY +4.9%에 머물며 예상치 하회
- 근원 물가 안도에도 소비자물가와 달리 완전한 안도 지표는 아니었음. 헤드라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았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PPI도 전월 대비 +0.8%로 강했음. 다만, 서비스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에 그쳤고 무역마진이 하락해 비용 전가가 전방위로 확산됐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 경계감은 잔존 시킨 정도의 지표로 해석. 연준의 즉각 인상 명분은 아니라는 판단

헤드라인 PPI 예상치 상회 및 높은 수준, 근원 PPI 예상치 하회에 안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헤드라인 물가 상승 기여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정적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딥시크, 터보퀀트... 겪어 봤던 의구심을 타고 오르는 AI

반도체 노이즈 지속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너무 많이 올랐기에 많아진 노이즈. 과거에도 반복됐으나 돌아보면 매수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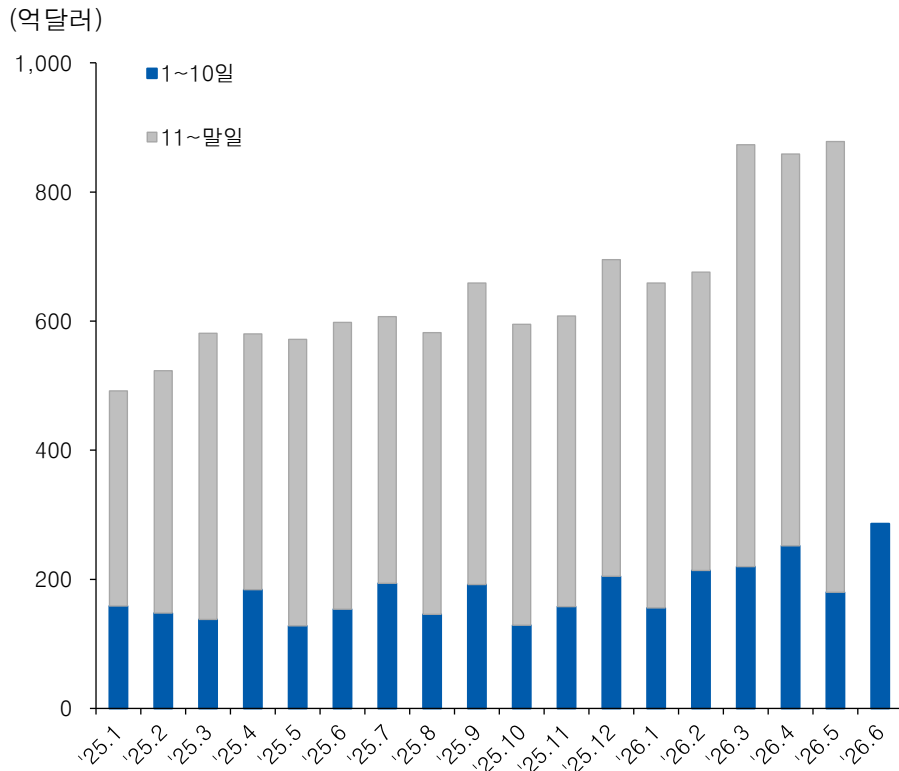
반도체 노이즈	주장	반박
크루소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일시 중단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멈췄으니 AI 인프라 수요가 둔화된 것	수요 둔화라기보다 특정 부지·특정 고객·지역 수용성 문제. 와이오밍 프로젝트는 대규모 노동자 숙소, 전력·환경·지역 반발 이슈가 겹친 공급 병목에 가까움. 동시에 크루소 전체 계약 용량은 5GW에 접근. “수요가 없어서 중단”이 아니라 “너무 크고 빠르게 짓는 과정에서 병목 발생”
SemiAnalysis발 CPO 지연 우려	CPO 도입이 늦어지면 광 네트워크 투자 사이클이 꺾일 수 있음	CPO 전체 지연으로 일반화하면 과도. 논란은 주로 Scale-up 영역과 특정 구조의 경제성·수율 문제. 반면 랙 간 연결, 즉 Scale-out 영역에서는 전력·대역폭 한계 때문에 CPO 도입 필요성 유지. 엔비디아 Quantum-X CPO 스위치, 루멘텀 CPO 매출 가시성, ELS/NPO 수요를 보면 방향성 훼손은 아님
SoCAMP2 탑재량 축소	Vera Rubin 내 SoCAMP2 용량이 줄면 메모리 사용량 감소, HBM·LPDDR 수요 둔화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 대당 탑재량을 줄여 더 많은 시스템을 출하하려는 사양 재배분. 엔비디아 CPU향 DRAM TAM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급 제약이 심하다는 방증
브로드컴 가이던스	AI 반도체 가이던스 미상향은 수요 둔화 신호	실적 자체는 AI 반도체 매출과 주문 강도가 견조. 수요 둔화보다 높아진 기대치 대비 가이던스 상향 폭 부족, 마진·램프업 속도에 대한 실망. “AI 매출 성장 둔화”가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앞선 상태에서 나온 차익실현”
오라클 Capex·자금조달 부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과도하고, 자금조달 부담이 AI 버블 붕괴 신호	자금조달·FCF 부담은 진짜 리스크. 다만 오라클의 클라우드 수주잔고와 AI 인프라 수요 자체는 강함. 문제는 “AI 수요가 없다”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너무 빨리 지으려니 누가 어떤 비용으로 자금을 댈 것인가”
SpaceX·OpenAI·Anthropic 상장/자금조달	AI 대표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기존 AI 밸류체인 약세 지속	수급 부담은 맞음. 다만 이는 신규 AI 투자처 등장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유동성 흡수 문제. 기존 AI 수요나 반도체 EPS 훼손과는 구분 필요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출데이터는 2분기 호실적 예고,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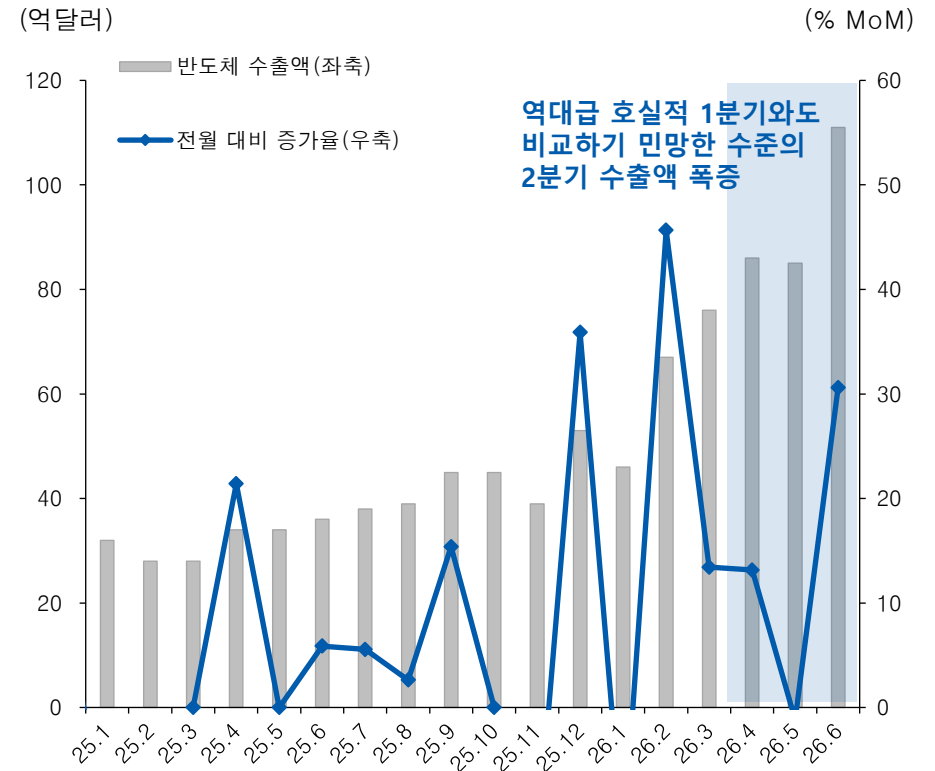
- 6월 1~10일 수출 호조 지속. 총 수출 286억 달러로 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 반도체 111억 달러로 수출 동기간 역대 최대
- 조업일수 증가 효과 감안해도 2분기 수출은 역대급 실적 예고. 6월 추가 공휴일도 부재. 조업일수 증가 및 6월 1,500원을 상회한 평균 원/달러 환율 효과까지 하면 벌써 기대되는 2분기 실적 시즌

또다시 역대 최고치 호수출 기록해버린 6월



자료: TRAS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수출액 1~10일 수출데이터 기준 월간 최대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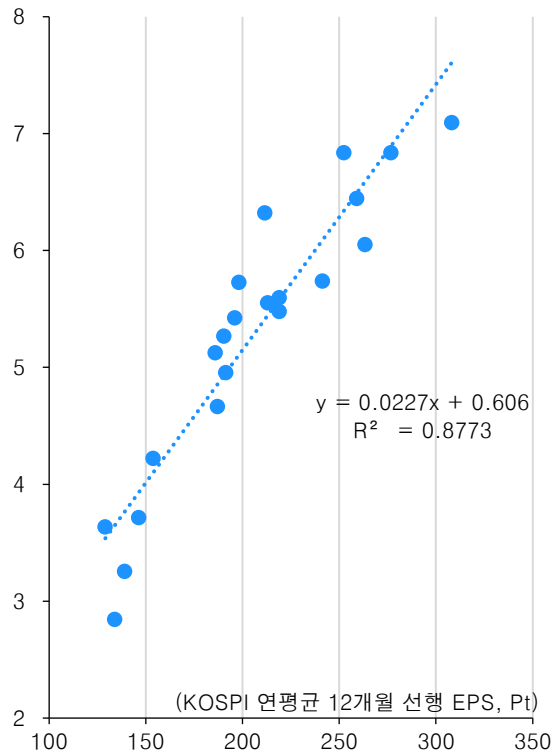
자료: TRAS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 한국 주식시장의 이익 개선은 내수보다 수출에서 출발. 특히 반도체 수출과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높은 동행성(상관계수 0.9) 보이며, 현재 KOSPI 이익 사이클의 핵심 축이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에 있음을 시사
- 현재는 분기말 실적 모멘텀 소멸로 인해 이익추정치 상향 둔화됐던 3월과 비슷한 상황. 2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기점으로 실적장세 재개, EPS 재상향 기대하는 이유

한국 수출 증가 = KOSPI EPS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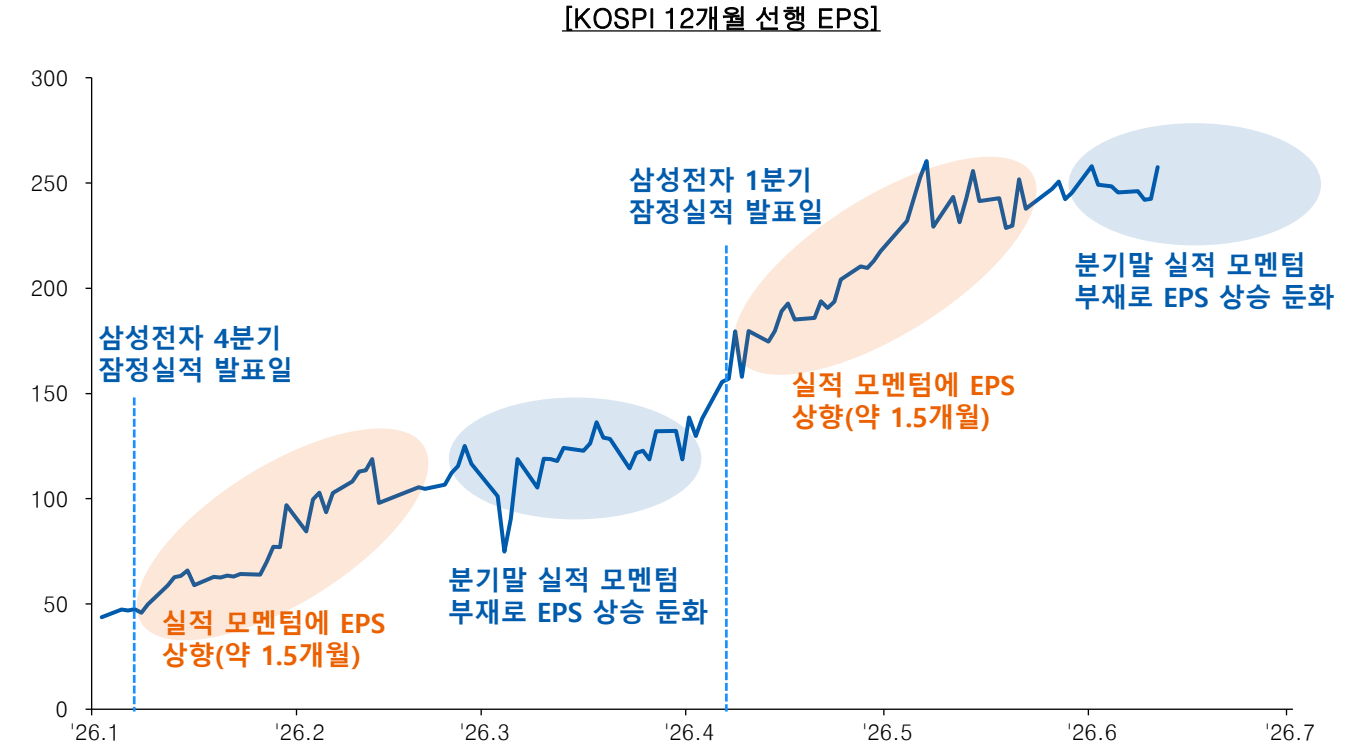
(한국 연간 수출액, 천억달러)



자료: TRAS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모멘텀 없는 분기말, 기를 모으는 중인 KOSPI. 2분기 수출은 7월 이후 EPS 상향 조정을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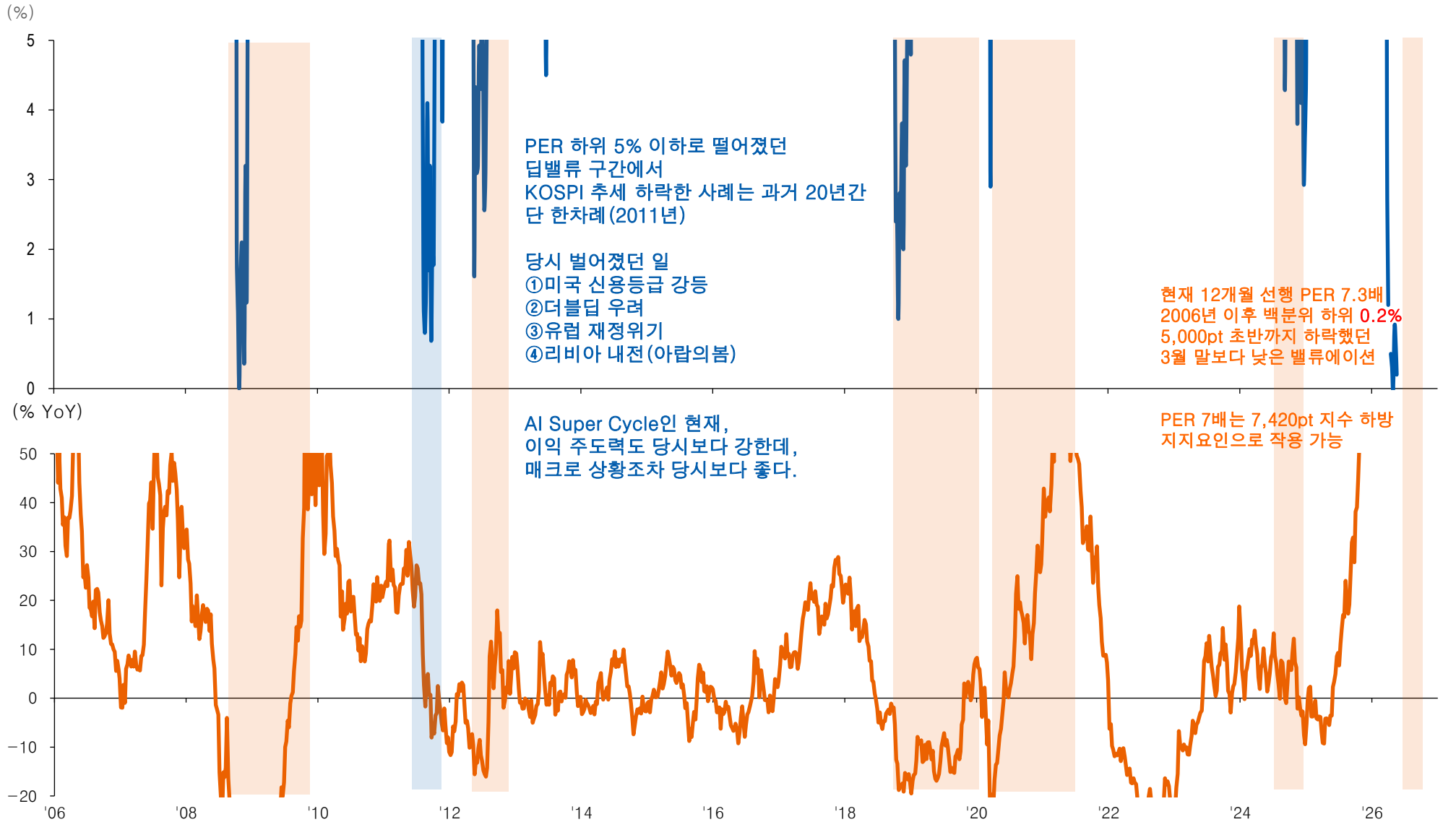
(% YoY)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PS 하향 조정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투매 실익 여전히 없다

(위) 12개월 선행 PER 백분위 (아래) KOSPI 전년 대비 수익률. 딥밸류 영역에서 딥밸류 야기한 리스크 완화는 강한 반등을 야기해 왔다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추진력을 얻기 위해 주도주 중심 압축 대응, 추진력 얻고난 후 확산될 업종 매수

- FOMC 이전까지 금리에 대한 시장 우려 및 AI에 대한 노이즈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그럼에도 AI 주도주 중심 압축 및 관망 대응이 낫다는 전망.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유통, 금융(내수)이 압축 해당 업종
- 수출 데이터와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반도체, IT 업종으로의 압축이 변동성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 확실한 호실적 업종으로 압축 대응 후 리스크(지정학, FOMC) 해소 및 변동성 감소 시 순환매 기다릴 호실적 업종(조선, 방산, 전력기계, 증권 등) 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 권장

구글 협력 기대 삼성전자 & ADR 상장 모멘텀 SK하이닉스

Google Turns to Samsung for Future AI Chip as Capacity Tightens

By Qianer Liu

South Korea's SK Hynix eyes US listing as soon as August, sources say

By Heekyong Yang and Yantoultra Ng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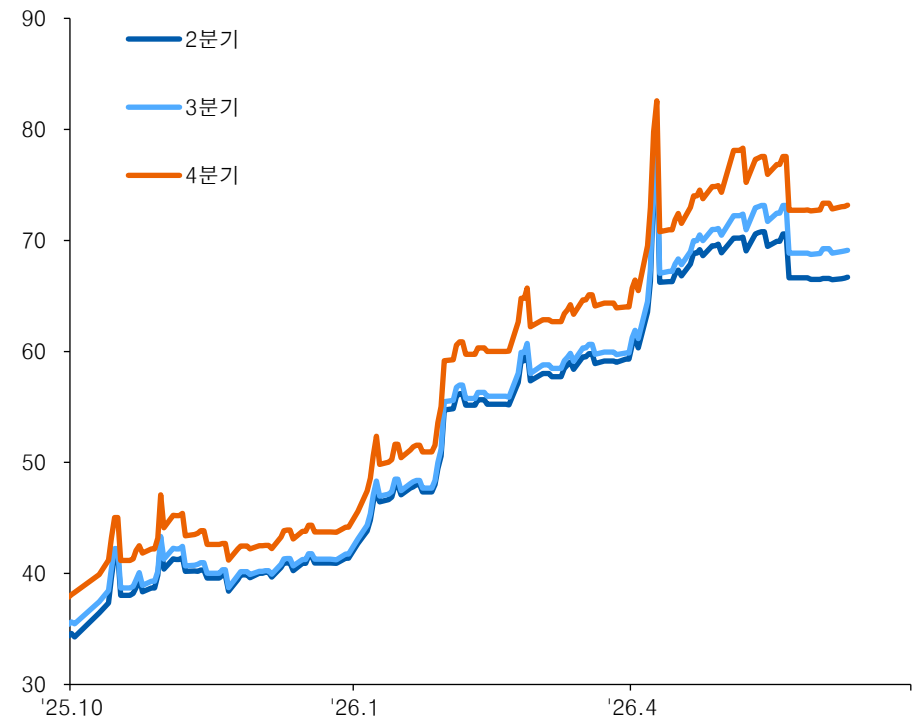
June 10, 2026 4:21 PM GMT+9 · Updated June 10, 2026



자료: The Information, Reute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변동성 장세에선 확실한 대피처로 업종 및 종목 압축이 필요 = 반도체

(%) [KOSPI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